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평

연극 분야

- 일정 및 장소 : 4.12(수)~4.14(금), 창의예술인력센터 실험무대 및 창조관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준희, 백하룡, 송형중, 안치운, 천영훈

창작은 입문과 소생이 되풀이되는 시간이고, 산실은 수태와 기원이 결정되는 공간이다. 심의는 지난 늦겨울에 시작해서 올 늦봄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선정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 올 초겨울을 향한다. 그 사이, 시간의 기별과 같은 연극이 드러나게 된다. 현재 시제인 공연은 입덧 같은 산실이 소멸할 때이다. 이 최종 심의평은, 지원사업의 이름처럼, ‘2017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실연심의’에 관한 것이다. 최종 심의는 사실 흠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1, 2차 심의 결과 선정된 14개의 극단 작품 가운데, 한 극단이 사업을 포기한 터라, 최종 심의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펼쳐진 13개 극단의 실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최종 심의에 오른 13개 극단들은 모두 활발하게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내, 국외에서 주목받았고, 주목받기 시작한 단체들이다. 극단의 이름과 연출가들, 공연할 희곡을 쓴 작가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도 이 사업 최종 실연심의의 모습을 가늠할 만하다. 연출로는 손정우, 동이향, 윤시중, 김현희, 이성열, 오태석, 최진아 등이다. 이들은 스스로 희곡을 쓰기도 했고, 김수미와 최치언처럼 그동안 희곡 분야에서 두루 수상경력이 있는 희곡 작가들도 있다. 한국연극에서 극단의 이름은 연극 창조의 분향과도 같다. 극단 두, 하땅세, 위대한 모험, 백수광부, 유목민, 목화, 놀땅 등은 연극창조에 있어서 저 자신의 입장과 열정을 마다치 않는, 그렇게 하면서 연극 본령을 자신들의 창작 정신에서 찾고 발휘하는 극단들이다.

심의위원들은 2017년도 지원사업이 한국연극의 보편성과 실험이 함께 진열되는 첨예한 산실처럼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작품들은 주제 면에서 매우 예민하고, 논쟁적이다. 시대와 삶의 거품을 걷어내고, 일상적 삶의 위기, 전쟁의 상흔과 공포, 분단 고착화에 따른 소외 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 속에서 자유롭고 아름답고 유연한 삶의 형태들은 찾아볼 수 없다. 인물들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호소하는 존재이다. 등장인물들은 작품이 수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극단 두의 <암전>, 극단 놀땅의 <선을 넘는 자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단하는데 도발적이었고, 극단 목화의 <모래시계>는 작가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우리 삶의 애정과 문제의식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극단 유목인의 <고래가 산다>, 극단 위대한 모험의 <미녀도....>, 극단 백수광부의 <최서

림...>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잔혹한 역사와 어둠의 기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진짜와 가짜, 실제와 허구에 대한 논쟁, 이야기의 기원과 욕망, 폭민들로 가득한 한국 사회의 징후를 읽는 비판적 개입 등이 이들 작품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 한복판에 고래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나, 대가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을 후경으로 놓고, 선이 흐려져 가는 자신들의 젊은 날 삶이 과연 허위였는지를 묻는 연좌의식이나, 결격 사유가 많아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들이 지금 여기를 떠나기 위하여 담장을 어슬렁거리고, 선을 넘는 것이나,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의지하게 되는 것은 시키는 대로 시늉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 마을에서 집단의 목소리가 이미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울리는 것은 모두 한통속이고,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징후이고 연극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여기에 극단 하땅세가 준비하는 <깨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극으로, 새로운 창작방법에 근거한 공연으로 보태진다.

최종 선정된 7개의 작품들이 모든 심의위원의 의견일치로 마감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선정된 작품들이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지적과 동시에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창작산실이란 단어처럼, 선정된 작품들은 본래적이면서, 끊임없는 손질로 달리 생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심의위원들은 최종 선정된 극단의 연출가와 희곡 작가 그리고 배우들이 심의 평가의 어느 하나에 함몰되지 않고, 이 두 개를 두루 살피서 평가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연극이 언제나 작가와 연출가들 개인의 사적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지만(본래적 창작개념으로), 오늘날 한국연극의 숙제는 이런 개인의 경험과 감동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한 재확인을 넘어서는, 동시대 문제로의 확장이다.(여기에 산실이라는 연극의 새로운 탈바꿈이 있다.) 그것은 짧은 실연 심의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터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숙고와 실천을 통해서 박차를 가하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성숙되기를 희망하고, 권하는 바이다. 연극이 창작이란 이름처럼 후련이 없는 이유, 산실이란 이름처럼 오래된 예술이지만 늙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심의위원 일동